

## 초등학생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및 흥미 일치도 분석

서지윤<sup>1\*</sup>, 김미경<sup>1</sup>, 송수용<sup>1</sup>  
<sup>1</sup>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 Correspond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ticipated Vocations, Perceived Competencies, and Interests

Ji-Yoon Seo<sup>1\*</sup>, Mi-Kyoung Kim<sup>1</sup> and Soo-Yong Song<sup>1</sup>

<sup>1</sup>Department of Vocation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Holland의 RIASEC 모형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및 흥미 일치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659명을 대상으로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검사결과를 토대로 Kappa 일치 지표를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일치도 분석과 성별, 학년에 따른 일치도 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직업기대-능력지각, 직업기대-흥미, 능력지각-흥미 일치도는 일반 Kappa, 가중치 Kappa 두 지표 모두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일치도 분석 결과 직업기대-능력지각에서는 남자, 여자 모두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다. 직업기대-흥미, 능력지각-흥미에서는 남자만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고, 학년에 따른 일치도 분석은 직업기대-능력지각에서는 5학년, 6학년 모두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다. 직업기대-흥미, 능력지각-흥미에서는 5학년만 유의미한 일치도를 나타냈고, 6학년은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었다. 전체적으로 초등학생의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간에는 유의미한 일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직업인식에서 능력과 흥미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을 뜻하며, 진로지도와 교육에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 correspondence of children's anticipated vocations, perceived competencies, and interest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sked 659 primary school students what activities they liked, those they thought they were good at, and what job they expected when they grew up. The responses were coded into RIASEC Holland codes and agreement across the three questions was examined using kappa statistics.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as a correspondence of children's anticipated vocations, perceived competencies, and interests. When broken down into separate examinations by gender, males and females had significant kappas for agreement between vocation and competence. And the correspondence of competence and interest was significant for males too. We couldn't examine females' case because they didn't answer C-type of Holland. Examinations of the results by grade demonstrated that 5th-grade and 6th-grade had significant kappas for agreement between vocation and competence. However the correspondence of vocation and interest was significant for 5th-grade. the correspondence of competence and interest was significant for 5th-grade too. We couldn't examine 6th-grade's case because they didn't answer C-type of Holland. The result obtained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correspondence of children's anticipated vocations, perceived competencies, and interests. Such a result means that children, 5th-grade and 6th-grade, can consider their competencies and interests with their vocations. The findings are especially relevant for counselors and teachers working with children.

**Key Words** : Anticipated vocations, Holland, Kappa, Interests, Perceived competencies

\*Corresponding Author : Ji-Yoon Seo (Kyonggi University)

Tel: +82-31-873-4415 email: jiyoon8084@hanmail.net

Received October 17, 2012 Revised (1st November 22, 2012, 2nd December 11, 2012) Accepted January 10, 2013

## 1. 서 론

### 1.1 연구문제 및 연구목적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취업시장 진입을 위해 소위 ‘스펙’을 갖추는데 모든 노력을 집중했지만 실제 취업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진로의 위기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진로’란 개인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는 일의 총체를 일컫는 개념이다 [1]. 이러한 진로에 대해 조금 더 일찍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통해 직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시기이다 [2].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진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준비를 해가는 것이 개인의 생애 발달에 대단히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등학생들은 좋아하는 직업에 대해 잘 알고, 자신의 직업을 자신이 선택하기를 바라지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으며, 직업선택 기준에 있어 자신과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었고, 좋아하는 직업에 대해 막연히 흥미를 느낄 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으며, 다양한 진로탐색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3]. 이처럼 초등학교 진로지도의 목표와 내용에 비해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부족, 자기이해와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할 수 있는 자료의 부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직업기대는 아동들에게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 같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응답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직업기대는 아동의 자아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실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직업과 그렇지 못한 직업을 평가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연속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아동 진로발달을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 [4].

Super [5]는 흥미기(11~12세)의 초등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직업의 선호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초등학교 진로지도의 목표에서도 아동의 능력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인식하고 이를 직업포부에 반영하는지의 여부도 진로 발달에서 중요하다 [4]. 그런데 아동이 흥미에 맞는 직업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직업기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이 본인의 흥미와

일치하는 지에 대한 통합성을 보는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직업기대와 능력 및 흥미 간의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3가지 직업관련 구조를 개념화하는 데에 가장 선호되는 모형은 Holland [6]의 RIASEC 모형이다. Holland의 직업선택이론은 1950년대 이후 직업흥미, 직업선택, 그리고 직업만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 왔으며, 개인의 흥미와 특성에 관한 초기 유형연구와 개인 환경 이론에 그 이론적 배경을 두고 있다. 직업적성을 개인차를 탐구해 보려는 연구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Holland 진로 적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4].

Holland [6]는 개인의 직업적 성격을 6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직업의 환경 또한 그러한 6가지 환경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유형과 비슷하거나 정체성이 있는 환경유형에서 일할 때 일치성이 높아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직업 환경에 대한 지식은 진로선택, 직업변경, 직업적 성취감 등에 관해서 중요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및 흥미 간의 관계를 Holland의 RIASEC 모형을 중심으로 일치도를 살펴봄으로써 진로인식의 초기 직업적 자기개념을 형성해 가야 할 초등학생을 위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이탈리아에서 진행되었다. 190명 아동을 대상으로 기대직업,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그리고 흥미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기대직업-흥미, 기대직업-능력 간에 관계가 없음으로 나타났다 [8]. 반면 아동의 흥미와 능력 사이는 일치하는 부분이 입증되었다. 초등학생의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간 관계연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초등학생의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일치도는 어떠한가?
- 둘째,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일치도는 어떠한가?
- 셋째, 초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 일치도는 어떠한가?

## 1.2 이론적 배경

### 1.2.1 직업기대

직업기대는 ‘특정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지각되는

정도[9] 혹은 현실적으로 미래에 가지게 될 것 같은 직업을 뜻한다[10]. 직업기대는 보통 직업포부와 함께 비교되며 연구되어 왔다. 직업포부는 ‘개인이 특정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희망직업’으로 정의 된다[11]. 즉 직업포부는 현재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과 같은 현실적인 환경을 엄격하게 고려하지 않고 장차 미래에 본인이 가지면 좋을 것 같은 꿈과 희망을 반영한 직업을 말하며, 직업기대는 본인의 현재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본인이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직업을 뜻한다. Helwig[12]는 진로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직업포부와 직업기대 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령이 증가하고 경험이 풍부해짐에 따라 환상직업이 줄어들고 현실적인 직업으로 조정해 간다는 것이다. 환상직업은 프로 운동선수나 연주가, 영화배우와 같이 현실에서 그 수가 매우 한정되어 실제로 되기 어려운 직업을 뜻한다[23]. 공운정[4]의 연구에 의하면 남학생의 직업포부의 29%, 직업기대의 17%, 여학생의 직업포부의 22%, 직업기대의 20%가 환상직업으로 분류되었다. 직업포부에 나타난 환상직업에 비해 직업기대에 나타난 환상직업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들이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시작하고 있음을 뜻하며 진로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2.2 능력지각

사회인지이론[13]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인식이 확장되고 자신의 능력과 행동에 대해 평가하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가 현실성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Gottfredson[11]은 중학생 이후가 되어야 자신의 능력·흥미·가치 등 내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박한샘[14]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 실현 가능성과 내외적인 요인에 대해 인지하고 가장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대안을 재조정해 나가는 아동이 일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직업에 대한 선호에 있어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고려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진로발달에 중요한 척도가 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능력(competence)은 우리나라에서 ‘역량’이라는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Competenc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White[15]는 주위환경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Competence’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능력지각(Perceived Competence)에 대한 연구는 1982년 Harter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그 후 Cause[16]에 의해 영역별 능력지각 개념의 타당성이 지지되었다[17]. Harter[18]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능력지

각이라고 정의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 학업 능력, 사회적 능력, 운동 능력, 신체·용모, 행동·품행 그리고 전반적 자아 가치감 등을 제시했다.[17]. 한중혜[19]는 이러한 능력 지각이 기존의 총체적인 자아평가 개념인 자아개념, 자아 존중보다 세분화되고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다.

### 1.2.3 흥미

Fryer[20]는 ‘흥미란 개인이 만족감을 얻는 사물이나 활동’이라고 했다. Guilford[21]는 ‘어떤 활동군에 이끌리게 되는 개인의 행동경향’이 흥미라고 정의하였다. 흥미는 오랫동안 직업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22]. Sharf[23]는 아동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흥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진로선택과정에 필수 요소가 된다고 했다. 초등학교의 진로발달을 설명하는데 있어 초등학교의 진로포부와 흥미를 분석하는 것은 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24]. Supe[25]는 초등학교의 진로발달에 있어 직업적 선호의 일관성 및 분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측정된 흥미와 직업적 포부와 일치 정도, 측정된 흥미의 패턴화 정도를 통해 초등학교의 진로발달 정도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26].

아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업포부와 기대는 자신의 능력과 흥미와 부합하려는 경향을 보이고[27], 초기 아동기 때보다 구체적인 흥미패턴을 가지게 되며 부정적인 활동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흥미의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24]. 그러나 아동의 흥미와 능력을 함께 평가한 연구 결과를 보면[28] 능력과 흥미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흥미가 직업기대나 능력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일을 직업기대로 선택을 하고 선택한 직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로발달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국외의 연구들에서는 흥미와 능력 그리고 직업기대의 일치에 대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통합적 실증 연구가 국내에서 필요하다.

### 1.2.4 Holland 성격 이론

Holland의 성격 이론은 1950년대 이후로 흥미, 직업선택, 직무만족 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어왔다[29]. Holland[30]는 ‘직업적 흥미는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개인의 직업적 흥미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였으며, 4가지의 기본 가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즉, 현

실형(Realistic), 탐구형(Investigative), 예술형(Artistic), 사회형(Social), 진취형(Enterprising), 관습형(Convention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의 생활환경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환경 유형은 그 환경 구성원들의 성격 유형을 반영한다.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다. 넷째, 진로선택이나 직업변경 등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 자신의 환경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6]. 이러한 Holland 성격 이론은 그가 분류한 6가지 유형의 머리글자를 따서 간단히 RIASEC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1.3 선행연구 분석

Gottfredson[11]은 직업포부 발달이론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와 같은 내적인 특성보다는 성역할에 따른 직업을 선호(6~8세)하거나 직업의 사회적 명성수준(9~13세)에 따라 직업포부를 형성한다고 했다. 한편, Super[5]의 진로발달 단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환상기(4~10세)와 흥미기(11~12세)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아동은 중요한 타인에 대해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기 개념을 발달시킨다. 이 단계의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지만 사회참여와 현실검증력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직업 선호에 있어 흥미와 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초등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기준은 다양하지만 아동 스스로 미래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보고 결정해 가는 과정은 아동의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동안 초등학생들의 직업선택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직업포부와 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서, 성역할 정체감[31, 4, 32, 33], 부모학습참여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34], 중요한 타인 및 매체, 학교활동[35] 등을 변인으로 삼았다. 해외에서는 아동이 직업 선호도를 표현하는 방법[36],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아동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37, 38], 그리고 아동의 흥미구조가 성인의 흥미구조와 다른 점[28, 39]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아동들이 생각하는 직업이 그들의 흥미나 능력과 얼마나 일치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능력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로는 부모의 양육태도[40, 22], 가정환경 및 또래 환경[41], 학업 성취[42], 스포츠활동 참여[43], 사회적 관계망[19] 등이 있다. 하지만 능력지각이 아동의 직업기대나 흥미와 얼마나 관계가 있으며 일치하는지에 대한 통합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진로지도에서 중시되는 요인에는 능력, 흥미, 적성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그러한 요인들 중에서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의 진로단계를 고려할 때 흥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 대한 흥미가 높으면 높은 동기와 만족감을 갖게 되므로 분야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의 흥미영역과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44].

Phipps[14]는 초등학생들의 직업 포부를 Holland의 RIASEC 코드에 따라 분류한 결과, 남학생은 현실형(R)을, 여학생은 예술형(A)과 탐구형(I)의 직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포부에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임은경[37]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현실형(R)과 탐구형(I), 여학생은 예술형(A)과 사회형(S), 탐구형(I)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포부와 직업기대에 관한 일치도 연구에서 RIASEC 코드로 분석한 결과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불일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5]. 또한 김병진[46]은 성격유형과 전공, 직업의 유형이 일치할수록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및 흥미를 Holland의 RIASEC 코드로 전환하여 그 일치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발달에 대한 단초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2개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로 총 682명이다. 이들 중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의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659명이었다. 연구대상의 남녀별, 학년별, 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별 RIASEC 코드 분포는 표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38	51.28
	여자	321	48.72
학년	5학년	305	46.28
	6학년	354	53.72
직업기대	R	119	18.06
	I	125	18.97
RIASEC	A	207	31.41
	S	99	15.02
C	E	70	10.62
	C	39	5.92

	R	336	50.99
능력	I	92	13.96
지각	A	204	30.96
RIASEC	S	17	2.58
C	E	5	0.76
	C	5	0.76
	R	249	37.78
흥미	I	44	6.68
RIASEC	A	265	40.21
C	S	80	12.14
	E	20	3.03
	C	1	0.15
전체		659	100

학생들은 설문지에 성별과 연령을 기입하고 직업기대, 능력지각 및 흥미와 관련된 3개의 주관식 질문에 답했다. 기대직업 질문은 “여러분은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 같나요?”였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 다양한 직업을 적을 수 있도록 권장했다. 능력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이 잘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적으세요.”였다. 흥미에 관한 질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적으세요.”였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살펴본 결과, 질문에 대해 여러 개 답을 쓰도록 유도 했지만 실제 아동들은 제일 먼저 생각났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한 답변 하나만을 기재한 경우가 많았다. 첫 번째 적은 답변은 그만큼 그 아동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거나 유일한 열망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첫 번째 답변에 대해서만 코드부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진로 및 직업 전문가 3인(직업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의해 RIASEC 특성 중 한 가지로 분류되었다. 전문가 간 다른 코드에 대해서는 토의를 거쳐 하나로 합의된 후 직업학 교수 1인의 검토 하에 최종 RIASEC 코드를 확정하였다.

## 2.2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통계분석은 빈도분석, 교차분석이다. 교차분석에서 Kappa 일치 지표를 이용해 3가지 항목과 관련된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의 RIASEC 코드 간 관계를 조사했다. 이 지표는 백분율 일치 지표에 비해 우월한데, 이는 Kappa 지표가 우연에 대한 통제를 하기 때문이다. 추가로 우리는 RIASEC 특성의 원형 구조와 유사한 가중치의 Kappa 값을 사용했다. 그 후 다시 Kappa 일치 지표를 사용해서 3가지 항목에 대한 RIASEC 코드 간의 관련성을 조사했다. Kappa는 -1.0에서 1.0 사이의 지수로, 주어진 변수들이 각자와 유사한 정도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직업기대에 대한 RIASEC 코드를 흥미

에 대한 RIASEC 코드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를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RIASEC 원형 구조 내에서 서로 가까이 위치한 특성끼리는 더 멀리 위치한 특성보다 깊 관계가 있음(예: R(현실형)과 I(탐구형)는 R(현실형)과 C(관습형)에 비해 더 유사함)을 고려하여, 가중치 Kappa를 사용해서 “근처에 있는 특성”들을 감안하고자 했다. 이 가중을 살펴보면 RIASEC 특성의 원형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완전한 일치(예: R 특성의(현실형) 직업과 R 특성의(현실형) 흥미)에 대해서는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R(현실형) 직업과 I(탐구형) 또는 C(관습형) 흥미와 같이 완전한 일치로부터 한 칸 떨어진 경우는 0.67의 가중치를 주었다. R(현실형) 직업과 A(예술형) 또는 E(진취형) 흥미와 같이 두 칸 떨어진 경우는 0.33의 가중치를 부여했고, 원형 구조 안에서 정 반대의 특성끼리는 0의 가중치를 받았다.

각 항목(직업기대, 능력지각, 흥미)의 RIASEC 코드 간의 관계를 일반 Kappa 일치 지표와 원형 가중치 Kappa 지표, 두 가지를 사용해 분석했다. 우리는 이 Kappa 분석을 먼저 대상 전체에 대해 실시하고, 각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 또 학년별로 구분하여 실시했다.

## 3. 연구 결과

항목들을 짝지어 비교한 Kappa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사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표본 전체에 대해서, 직업기대 항목의 홀랜드 코드와 능력지각 항목의 홀랜드 코드는 유의미하게 일치(K=.268, p<.001)했다. 또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그 값이 더욱 높아졌다(K=.450, p<.001). 각 성별로 나누어 관찰한 결과, 일반 Kappa와 가중치 Kappa 두 지표가 모두 유의했다. 남자는 일반 Kappa가 .217(p<.001), 가중치 Kappa가 .388(p<.001)이었다. 여자는 일반 Kappa가 .270(p<.001), 가중치 Kappa가 .424(p<.001)이었다. 즉,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사이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큰 일치성을 보인다. 학년별 분석 결과 또한 일반, 가중치 Kappa 모두 유의미한 일치를 보였다. 5학년은 일반 Kappa가 .263(p<.001), 가중치 Kappa가 .447(p<.001)이었고, 6학년은 일반 Kappa가 .266(p<.001), 가중치 Kappa가 .456(p<.001)로 나타났다. 이 패턴은 미세하긴 하나 연령의 증가와 함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이 더 일치함을 의미한다.

직업기대와 흥미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표본 전체에 대해서, 직업기대 항목의 홀랜드 코드와 흥미 항목의 홀랜드 코드는 유의미하게 일치(K=.259,

p<.001)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그 값 또한 더욱 높아졌다(K=.436, p<.001). 각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자는 일반 Kappa가 .251(p<.001), 가중치 Kappa가 .428(p<.001)로 모두 유의했다. 그러나 여자는 카파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여자 중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년별 분석 결과, 5학년은 일반 Kappa가 .233(p<.001), 가중치 Kappa가 .445(p<.001)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6학년에서도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었다.

[Table 2] General and weighted Kappa analysis results

		구분	N	일반 K	가중치 K
		전체	659	.268***	.450***
직업기대 X 능력지각	성별	남자	338	.217***	.388***
		여자	321	.270***	.424***
	학년	5학년	305	.263***	.447***
		6학년	354	.266***	.456***
		전체	659	.259***	.436***
직업기대 X 흥미	성별	남자	338	.251***	.428***
		여자	321	-	-
	학년	5학년	305	.233***	.445***
		6학년	354	-	-
		전체	659	.407***	.627***
능력지각 X 흥미	성별	남자	338	.384***	.610***
		여자	321	-	-
	학년	5학년	305	.380***	.608***
		6학년	354	-	-

\*\*\*p<.001

마지막으로 능력지각과 흥미 사이에서도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표본 전체에 대해서, 능력지각 항목의 홀랜드 코드와 흥미 항목의 홀랜드 코드는 가장 높은 일치성을 나타냈다(K=.407, p<.001).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시 분석한 결과 그 값은 더욱 높아졌다(K=.627, p<.001).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남자는 일반 Kappa가 .384(p<.001), 가중치 Kappa가 .610(p<.001)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며 유의했다. 그러나 여자 중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카파 통계량을 계산할 수 없었다. 학년별 분석 결과, 5학년은 일반 Kappa가 .380(p<.001), 가중치 Kappa가 .608(p<.001)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6학년 또한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치도

를 확인할 수 없었다.

####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진로발달의 초기 단계에서 기초적인 진로인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그리고 흥미 간의 일치도를 Holland의 RIASEC 모형을 분류도구로 활용하여 살펴보고 그것이 성별과 학년별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검증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사이에서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의미한 일치 관계를 나타냈으며 여학생이 조금 더 큰 일치성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5, 6학년 모두 유의미한 일치 관계가 나타났으며 6학년이 미세하게 조금 더 큰 일치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이탈리아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8]에서 아동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간에는 관계가 없다는 결과와는 상반된다. 이는 이탈리아 아동들의 직업기대가 본인들이 잘 하는 활동과는 상관이 없이 그저 본인이 친숙한 직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아동들은 미래직업에 대해 본인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Gottfredson[11]은 직업포부 발달이론에서 9~13세의 학생들은 사회적 명성 수준에 의해 직업을 고려하고 자신의 능력은 중학생 이후에나 고려한다는 주장과도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Gottfredson의 연구시기의 아동들보다 직업에 대한 인식이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Super[5]의 진로발달 단계에서 11~12세의 아동이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중시한다는 내용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연구[33]와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고학년이 되면 직업인식에서 능력요인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자신의 능력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업기대와 흥미 사이에서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성별로는 남학생은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Kappa 값을 구하지 못해 일치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여학생의 흥미 항목에 대한 결과에서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년별 분석결과는 5학년은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으나 6학년에서는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어서 Kappa값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가 되면 진로에 있어 자신의 흥미를 고려한다는 기존의 연구들[5, 24]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능력지각과 흥미 사이에서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표본 전체에 대해서 기대직업-능력지각, 기대직업-흥미 일치성 보다 훨씬 높은 일치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아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흥미와 능력간의 일치성이 증대하며, 초등학생의 진로인식에 있어 흥미와 능력의 직업적 자기개념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14]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성별로는 남학생은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Kappa 값을 구하지 못해 일치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여학생의 흥미 항목에 대한 결과에서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년별 분석결과 또한 5학년은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으나 6학년은 흥미 항목에 대해 C(관습형)로 응답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일치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

5학년 남자 1명을 제외한 전체가 C(관습형)의 흥미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이다. 관습형(C)은 자신에게 정확하게 정해진 일을 좋아하며 체계적이고 인내심이 많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로 자료를 처리하고 기록을 정리하는 일을 선호하며 예술적인 활동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이미 정해져있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수동적이고 단순한 활동에는 흥미를 적게 느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그들의 진로에 대한 개입 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5, 6학년 초등학생들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그리고 흥미 간에는 유의미한 일치관계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초등학생의 진로지도와 진로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등학생들도 5, 6학년이 되면 직업인식에 있어 자신들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교사나 진로상담자가 인식을 하고, 그들의 직업포부를 발달시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흥미와 능력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학습과 노력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달 및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시기이다. 자칫 하면 현재 자신의 능력과 흥미만 생각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미래의 직업에 대한 도전의 가능성을 놓친다면 이것은 개인의 진로발달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진로개입을 통해 초등학생의 진로발달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켜야 하는 교사와 상담자는 개인의 능력과

흥미의 지속적인 발달 가능성에 대해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한 미래의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을 권장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큰 미래의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수도권 중심의 특정지역에 소재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초등학생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흥미간의 일치도만 살펴봄으로써 일치하는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후의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 지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진로발달 양상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항목에서 관습형(C)으로 응답한 사람이 없어 연구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왜 관습형(C)이 다른 유형에 비해 빈도가 낮은지에 대한 심층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직업기대와 능력지각 그리고 흥미 요인을 통합해서 그 일치도를 살펴본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연구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그들의 직업인식에서 능력과 흥미 요인을 고려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더 빠른 시점에서 진로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인 진로교육 및 진로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정확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직업기대-능력-흥미와 일치되는 직업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계획 및 준비를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Kim Choong Ki, Kim Hyun-ok,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unseling, Kunkook University, Seoul, 1993.
- [2] Kim Choong Ki, Career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Baeyoungsa, Seoul. 1992.
- [3] Lee, Young Dae, "Development Strateg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Life Long Learning Society",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3(1), 2001.
- [4] Gong, Younn Jung, "The Influences of Career-Related Parental Support and Children's Locus of Control on Children's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1 No.3, 2008.
- [5] Super, D. E. Career and life development. In D. Brown & Brook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84.
- [6] Holland, J. L. Exploring careers with a typology.

- American Psychologist*, 51, 397-406, 1996.  
DOI: <http://dx.doi.org/10.1037/0003-066X.51.4.397>
- [7] Kim, Seon Yeong,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Correspondence Level Between Vocational Personality and Degree Preference of Holland's Theory, MA Thesi,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9.
- [8] Prime, D. R., Nota, L. Ferrari, Schultheiss, K. E., Soresi, S., & Tracey, T. J. G. Correspondence of children's anticipated vocations, perceived competencies, and interests: Results from an Italian samp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 58-62, 2010.  
DOI: <http://dx.doi.org/10.1016/j.jvb.2010.02.012>
- [9] Johnson, L. A multidimensional analysis of the vocational aspirations of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 Evaluation in Counseling & Development*, 28(1), 25-44, 1995.
- [10] Rojewski, S. W. Occupational aspirations: Constructs, meaning, and application. In S. D. Brown, & R. W. Lent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pp. 131-154), 2005.
- [11] Gottfredson, L. S.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pp.545-579, 1981.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28.6.545>
- [12] Helwig, A. A. A test of Gottfredson's theory using a ten-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8, 77-95, 2001.  
DOI: <http://dx.doi.org/10.1023/A:1012578625948>
- [13]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1994.  
DOI: <http://dx.doi.org/10.1006/jvbe.1994.1027>
- [14] Phipps, B. Career dreams of preadolescent studen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2, 19-32, 1995.  
DOI: <http://dx.doi.org/10.1007/BF02247893>
- [15] White, R. W.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1960. DOI: <http://dx.doi.org/10.1037/h0040934>
- [16] Cause, A. M. School and peer competence in early adolescence: A test of domain specific self perceived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287-291, 1987.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3.2.287>
- [17] Kim, Hyun-ok, "Effect of Children's Social Network on Self-Perceived Competence,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2010.
- [18]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the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77-87, 1982.  
DOI: <http://dx.doi.org/10.2307/1129640>
- [19] Han, Jong Hye, "Perceived Competence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 child's social network", Ph.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1996.
- [20] Fryer, D. *The measurement of interests*. Henry Hold & Co. Inc., New York, 1931.
- [21] Guilford, J. P. *Personality*. McGraw Hill Book Co. Inc., New York, 1959.
- [22] Chang In H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 and self-perceived competence", MA Thesi, Korea University, 2004.
- [23] Sharf, R. S.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4thed)*. Belmont, CA: Thomson, Brooks/Cole, 2006.
- [24] Lee, Jong Bum, "(The)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 [25] Super, D. 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per & Row, 1967.
- [26] Savickas, M. L., & Spokane, A. R. *Vocational interest: Meaning, measurement, and counseling use*. Palo Alto: Davies-Black Publishing, 1999.
- [27] Hartung, P. J., Profeli, E. J., & Vondreck, F. W. Child vocational development: *A review and reconside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In Press, Corrected Proof, Available online 11 September 2004.
- [28] Tracey, T. J. G., & Ward, C. C. The structure of children's interests and competence percep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290-303, 1998.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45.3.290>
- [29] Kim, Byung Sook, & Kim, Duck Hwan & Kim, Min jung, "Value of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the Holland Personality Type cerebral hemisphere dominant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 analysi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3), 77-98, 2011.
- [30] Holland, J. L.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73.
- [31] Song, Eun Ja,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Variability of Sex-role Identities and Vocational Aspiration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 Thesi,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4.
- [32] Lee, Jung Im, "Identity and career aspir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s", MA Thesi, Aju



University, 2008.

[33] Lim Eun Kyung,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Aspirations in Grade School Children", Ph.D.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34] Yang Nan Mi, Lee Eun Kyung, "Academic involvement and learning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the career aspirations of parents self-efficac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earch",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2), 455-472, 2008.

[35] Jun, Sun Mi, "Variables Associated with Vocational : Aspirations Formation in Rural Area Elementary Students", MA Thesi,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09.

[36] Nota, L. Ferrari, L., Solberg, V. S. H., & Soresi, S. Career search self-efficacy, family support, and career indecision with Italian youth.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2), 181-193, 2007.  
DOI: <http://dx.doi.org/10.1177/1069072706298019>

[37] Lent, R. W., Tracey, T. J. G., Brown, S. D., Soresi, S., & Nota, L. Development of interests and competency beliefs in Italian adolescents: An exploration of circumplex structure and bidirectional relationshi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2), 181-191,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53.2.181>

[38] Tracey, T. J. G. Development if interests and competency beliefs: A 1-year longitudinal study of fifth-to eight-grade students using the ICA-R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2), 148-163, 2002.  
DOI: <http://dx.doi.org/10.1037/0022-0167.49.2.148>

[39] Tracey, T. J. G. The development of structure of interests in children: Setting the stag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1), 89-104, 2001.  
DOI: <http://dx.doi.org/10.1006/jvbe.2000.1787>

[40] Gong, In Sook, "Children's perception of parental warmth and control and their self-perceived competence", MA Thesi,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9.

[41] Lee, Juri, "Home Environment and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Research*, Vol.9 No.1, 131-144, 1994.

[42] Kim, Chi Young,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and It's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MA Thes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87.

[43] Kang, Tae Won, "Study on the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children's own abilities", MA Thesi, Dong-a University, 1999.

[44] Cho Boong Hwan, "Multicultural families,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arning interests and career develop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4(2), 219-245, 2011.

[45] Patton, W. & Creed, P.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Variables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ions for Australian High School Adolescents. *Jouranl of Career Development*, 34, 127-148, 2007.  
DOI: <http://dx.doi.org/10.1177/0894845307307471>

[46] Kim, Byung Jin, "Relationships among Congruence Level of Holland Vocational Types, Job Satisfaction and Job Accomplishment", Ph.D.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8.

서 지 윤(Ji-Yoon Seo)

[정회원]



- 2008년 2월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1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00년 7월 ~ 2009년 5월 : (주) 대학과미래 부장
- 2010년 12월 ~ 현재 : 커리어컨설팅연구소 대표
- 2012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외래강사

<관심분야>

직업심리, 직업상담심리, 직업윤리

김 미 경(Mi-Kyou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직업학석사)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박사과정
- 2011년 4월 ~ 2012년 8월 : 수원시 미스매칭프로그램 전문강사
- 2012년 3월 ~ 2012년 6월 : 삼육대학교 외래강사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직업정보

송 수 용(Soo-Yong Song)

[정회원]



- 2005년 8월 :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언론학석사
- 2008년 2월 ~ 현재 : 한국인재인증센터 대표
- 2010년 3월 ~ 2011년 12월 :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2010년 3월 ~ 현재 :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진로교육, 직업심리, 교육심리